

桂泉先生 片貌

金 奎 榮

진데도 짧다는 것이 歲月이다. 보이지도 않는데 흘러간다는 것이 時間이다. 언제 내가 桂泉先生을 만나게 되었던가? 그 만남의 첫 印象을 더듬어 보면 解放前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法文學部 時節이다. 鶯首苦待하면 哲學科 志望生이 “이번엔 한 명豫科에서 올라온다던데!” 하는 말을 들은 뒤 칠후, 圖書館에 달린 東部研究室 앞에서 인사를 받게 되었으니, 그의 이름은 「尹明老」란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키는 자그마한 분인데 그 빛나는 四角帽를 손에 든 채였다. “아니, 帽子란 머리에 쓰는 것인데 왜 손에 들고 있어?” 하며 웃는 낯으로 대하니 그이도 여원面貌에 미소를 띠울 뿐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그후 講義室에서 몇 번 만나게 되었으나 어느덧 자취를 감추고 말았으니 나중에 들은즉 學兵에 끌려 나갔다는 것이다.

우리 겨레가 모두 함께 겪은 受難·激動期를 거쳐서 新制大學을 나오고 結婚도 하고 自宅을 마련한 곳이 新設洞이었다. 그때 나는 安岩洞에 살았기에 넓은 내 건너편 다리 하나 건너면 쉬이 찾아갈 수가 있었다. 어느날 宅으로 놀러 갔더니 酒案床이 나오기 전에 모시고 있는 어버이 두 분께 인사를 시키며 소개하는 것이었다.

桂泉先生의 樓府丈은 鄉里인 長湍에 사시던 疏脫한品位를 지닌 純樸한 분으로 보였고 그 가까이에 앉으셨던 慈堂은 암말없이 따르는 조용한 菩薩을 연상케 하는 風貌였다. 나는 즉자에 알아보았지만 그때 느낀 것이 틀림없이 맞아든 것이라고 지금도 생각한다. 그것은桂泉先生의 氣骨은 춘부장을 닮았고, 그 ‘비단결같이 고운 心性’은 차당으로부터 받은 태고난 것이라고. 그 얼마 후에 師母님한테서 들은 이야기이지만,桂泉先生은 慈堂께서 부처님께 百日祈禱를 드려 그 정성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當代獨子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후 가끔 놀러 갔다. 머리 속으로는 「賢哉 賢哉」하고 孔子의 稱頌을 받던 顏回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다. “安貧樂道之士로구만!” 그러다가 約五年 後에 先生은 고만 移徙를 가게 되었다.

얼마 후 수소문하여 찾아가 보았더니 저 崇仁洞 山蟠대기에 자리한 집이었는데, 그야말로 앞마당엔 살구꽃 뒷뜰엔 복숭아나무를 그리게 하는, 어느 시골의 自作農家를 연상케 하는 마당있는 집이었다.

마루에 들어서 對坐하여 잔을 나누며 藥酒맛을 즐길 때 나의 腦裡를 스쳐간 것은, 아직도 函谷關을 생각하기 前의, 젊은 날의老子의 모습이었다.老子의 姓은 李, 이름은 「耳」로 되어 있다.桂泉先生이야말로 그때부터 벌써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조용히 들어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으로 보였다.

約 10年間의 崇仁洞 삶이가 지나자 先生은 龍頭洞으로 옮겨 갔다. 이 時節이 아마도 先生의 生涯 中에서 가장 家族의인, 平和스럽고 단란한 家庭을 이루고 사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膝下에는 未來를 기대하는 4남매를 두었고, 이따금 놀려가면 겨울에는 보쌈김치

(金奎榮)

와 식혜, 여름에는 師母님의 남다른 솜씨를 볼 수가 있었으니, 庭園에는 포도나무 넝쿨과 아울러 여러 가지 花草들이 많았고 분재들도 결들여 眼福을 누리게 하는 雅趣를 돋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生活周邊이 또 한번 바뀌게 되어 이번엔 大方洞에 있는 2層洋屋에 들게 되었으니, 이는 桂泉先生이 職場을 따라 옮긴 것으로 보아진다. 이 무렵에先生은 子女들을 다 獨立시켜 分家해 따로 나게 하거나, 出嫁시켜 버리어 결국은 兩主 두 분만 남게 된다. 그래서 나는 거의 해마다 歲暮 때가 되면 서로 만나 宅에서 '一杯一杯復一杯'로 치나간 날의 懷抱와 아울러 다가을 새날 즉 새해의 待望을 이야기하곤 하였다.

그러다 보니 於焉 40 餘年, 新設·崇仁洞 時節(約 15 年間)이 간다는 소리도 없이 그 歲月의 痕迹만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긴채 간데없이 사라졌구려!

이제 停年을 맞이하게 된 이 마당에 桂泉先生의 學的인 研究業績을 그 연보에 따라 上記한 그 각 時節에 맞추어 본다면 이렇게 드러난다.

맨 첫 論文인 「論理的思考의 本質」(서울大刊『哲學』)을 쓴 것은 崇仁洞 時節 末期에 해당한다. 이 때에 비로소 尹教授는 哲學部門에 있어서도 특히 論理學 分野에 基本의 인 기틀을 잡아 놓은 셈이다.

다음엔 5年後에 나온 論文 「Carnap에 있어서의 論理的 世界把握」은 龍頭洞 時節에 접어들어서 쓴 것이다. 이어서 尹教授는 古代로 파고 들어가, 3年후에 「Aristoteles에 있어서의 分析論後書와 論理思想」, 또 3年후에 쓴 「學으로서의 哲學과 Aporetik의 意義」를 『東大論文集』에 실리게 된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이듬해인 1971년에 本姿勢를 가다듬고 研究한 論文, 「Husserl의 客觀主義에 관한 考察」과 더불어 「獨塊學派의 客觀主義에 관한 論究」로써 博士學位를 取得한다. 이런 堅實한 研究活動이 다 龍頭洞 時節에 있은 일이다. 뿐만 아니라 그후에도 研究意欲은 더욱 왕성하여져, 「現象學의 方法과 解釋學의 方法의 比較研究」(『省谷論叢』)와 「對象論과 이론바 '失鄉對象'」, 그리고 「Husserl의 現象學의 現代的 意義」(『哲學』 9집) 등의 論文들이 나온 것도 龍頭洞 時節이다.

그리고 나서 2年後에 『哲學研究』(12집)에 실린 論文, 「現象學에 있어서의 經驗의 意識」와 「哲學에 있어서의 體系와 問題學」, 그리고 『現象學研究』에 寄稿한 論文 「Husserl에 있어서의 現象學의 構想과 志向의 含蓄」 및 近者에 쓴 「現象學의 根本問題」등의 論文은大方洞 時節의 것이다.

이처럼 平生을 두고 哲學하여온 桂泉先生의生涯를 筆者는 3期로 區分하여 前半, 中半, 後半期로 나누어본다. 전반이란 新設洞 時節(1947~'51)과 崇仁洞 時節(1951~'60), 중반이란 龍頭洞 時節(1960~'75)로 4.19 以後를 말함이요, 후반이란大方洞 時節(1976~'87)로 서울大奉職期를 거쳐 停年에 이른다.

이렇게 세 時期로 나누는 事緣은 이러하니, 筆者가 그 오랜 歲月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桂泉先生과의 交友關係를 통하여 느낀 바, 세가지 點을 살펴보고자 할것이다. 그 첫째는

「老」요, 둘째는 「明」이요, 세째는 「虛」라는 점이다.

첫째로, 「老」라 말함은 이런 點을 뜻함이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學生時節이 떠오르지만, 解放전 學部때 첫인사를 받았을 적에 그 姓銜 중의 鹽을 '老'자가 나로 하여금 매력을 느끼게 한 것이다. 과연 그후에 新設洞 시절에 놀러 갈 때마다 점점 느끼게 된 것은, 그 체구나 그 나이에 비해 禮節面에서나 그 人品에 있어서는 '老熟함'을 보여주는 점이었다.

그리고 筆者가 文理大 研究室에 있을 무렵에 같은 또래 哲學科 同僚들치고 누구 하나 「尹明老」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다. 거 어째서 그럴까? 하였는데, 이런 反問이 崇仁洞 시절에 가서야 풀린 것이다. 왜 모두들 그를 좋아할까? 孔子는 六十歲가 되어서 「耳順」이라고 하였지만, 桂泉先生은 「李耳」란 성함을 가진 老子와 같은 '귀의 사람'이라는 點을 알아차리게 된 것이다.

둘째로, 「明」이라 말함은 이런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桂泉先生의 研究論文들을 發表年代順으로 對照해 본 바와 같이, 龍頭洞 시절에 没頭한 研究의 究明의 焦點은 「Husserl」과 「獨塊學派」 및 「對象的」과 「現象學」으로 集中된다. 다 아는 바 獨塊학파의 主將格인 F. Brentano의 '明證說'과 아울러 Husserl의 '本質直觀'은 哲學的 論究를 하는 現場에 있어서 '明晰함'을 드러내는 認識論理이지만 우리 桂泉先生의 '明言'는 哲學徒들의 會食席上이나 어떤 知性人們의 모인 자리에서 더욱 그의 特異한 獨自의인, 逆轉의 유모어로서 나타나곤 하였다. 모두들 깔깔 웃으며 가만히 속으로 생각해보면, 그의 明言는 '言中有骨' 이요, 이는 事物의 本質과 事象(Sache)의 真相을 揪뚫어 본, 그 통찰력의 所在을 알게 되는 까닭이다. 둘이켜 생각컨대 桂泉先生의 文理大 卒業論文 題目이 「Husserl」의 直觀에 관하여」로 기억하고 있다.

세째로, 「虛」라고 말함은 그동안 살아온 桂泉先生의 속마음을 한 言辭로 表示해 보고자 합이다. 先生의 學會活動 및 研究活動은大方洞 시절에도 그냥 즐기차게 이어나아갔으니, 앞서 列舉한 論文들의 主題들을 보아도 尹明老 教授는 韓國現象學會長으로서 있는 동안에 이 나라의 現象學會의 基盤을 創立하는 것으로 周到하게 잘 다져 놓았다고 할 수 있다.

現在의 現象學會會長은 벌써 3代째로 알고 있는데 이같은 學會繼承을 위하여 남모르게 정성껏 일하여온 桂泉先生의 그 心底에 깔린 '속마음'이 어떤 것이었길래 그와같은 일에 대한 活動이 可能하였을까?

一年에 한번밖에 없는 謝恩會 때나 들을 수 있는 尹明老 교수의 一番은 「이 風塵世上을 만났으니 나의 希望이 무엇일까……」이다. 그 어느해였던가? 대로 모인 哲學科卒業生들의 忘年會 席上에서 들은 桂泉先生의 答辭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자, 새해를 맞이할 新年度의 計劃이나 새로운 構想을 들어보기로 합시다!」라는 弟子들의 要請에 다른 교수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志向과 所見을 얘기하였는데, 말할 차례가 된 先生의 이야기는 이러한 것이었다. 「어느날 한 聖者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고이 사라졌다! 고 전하여 들리는 것이 願이다」라고.

이런 말을 아무나 無心코 할 수는 없지 않는가? 平素에 항상 진실로 '虛心' 無慾한 속마음을 지닌 이가 아니라면, 어떻게 선뜻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리하여 「虛」란 말을

통하여 桂泉先生의 ‘속마음’을 私淑하여 오던 筆者는, 『現象學研究』제 1 치에 賀書 대신,拙筆로써 다음 두 句節을 써서 簿子로 만들어 갖다 드렸다.

平生涉世似虛舟 不著胸中一點愁

일찍이 Novalis는 哲學을 ‘鄉愁’라고 하였단다. 이 地上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뉘라서 제 故鄉을 그리워하지 않으리오마는 桂泉先生이나 筆者는 本意 아닌 失鄉民이 되었으니 어찌 할까나? 이제 本鄉으로 돌아갈 準備를 해야 할 段階에 이르렀으니 앞으로는 차근차근 整理를 해놓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於焉 65 星霜! 지나고 보면 暫間이라고들 말하지만, 回顧하여 보면 追憶도 가지가지, 오랜동안의 긴 旅程이었지요, 들리는 바 桂泉先生께서는 停年 退任式을 맞이하기 前에 이이大方洞을 떠나서 安養으로 安住하시게 되었다고. 어떻게 보면 우리네 人生살이 자체가 하나의 巡禮의 道程이 아닐까요?

바라옵건대 앞으로도 變함없는 友誼와 이땅에 태어나 같은 때에 서로 만난 이 보람을 절 이길이 간직하여 나아가도록! 그리고 數많이 키워낸 그 弟子들과 桂泉先生의 學德을 기리는 後進들을 위하여 刊行될 著作과 아울러 알려진 墨香을 술하게 남겨주시도록 祈願해 마지 않는 바이다.